

## 캐릭터 능력 소개



## ◆심리 쪼작

그랑테르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의 선율을 읽고 조정할 수 있다. 감정 또는 방향을 바꾸어 사람들을 화합시키거나 갈등을 조율할 수 있다. Ex. 분노 → 연민, A → B 를 향한 증오. \*능력 사용 제약은 체력과 책임이다.





앙졸라스는 자신이 마법사들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한다. 그랑테르는 고민하더니 너라면 할 수도 있겠다고 행운을 빌어준다.

**CLIMAX** 

혁명 전날 저녁, 술집에서 그를 찾아낸 앙졸라스는 사과하며 오해를 바로잡는다. 그랑테르는 마법사들은 존재가 부정되어 들키는 순간 체포된다며, 저항했지만 실패했고 동료들은 실종되었다는 과거를 털어놓는다.

몰린 앙졸라스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마법을 사용하여 경찰들의 폭동 진압 목적을 탈옥수인 자신을 증오하여 체포하는 것으로 뒤집어쓰고 대신 잡혀가 사형을 선고받는다.

혁명당일. 그랑테르는 궁지에

그랑테르는 심리 조작으로 서민들을 도와주고 영입하려 드는 앙졸라스에게도 시도하나 매번 실패한다. 결국 그는 체념하며 넌 왜 안 통하냐고 묻는다. 앙졸라스는 세상을 바꾸려면 흐름에 휩쓸려선 안 된다고 답하고, 그랑테르는 큰 변화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고 빈정거리나. 우정이 싹트기 시작한다.

한편 그랑테르는 늦는 앙졸라스를 걱정한다. 하지만 같이 들어온 쿠르페락을 보자 동료를 인질로 자신을 이용하려는 속셈이냐며 뛰쳐나간다.

어느 날, 앙졸라스는 엉성한 협박범이자 그랑테르의 예전 동료 쿠르페락(25세)을 만난다.

**EXPOSITION** 

앙졸라스는 절친 콩브페르(26세)와 혁명참여자들을 기다린다. 약속 시각이 한참 지났지만 모두 탈옥한 무기 징역수 때문에 거리에 깔린 경찰이 두려워 오지 않는다.

한 남자(그랑테르)가 쫓기듯 들어온다. 탈옥수임을 들키자. 남자는 마법으로 콩브페르의 의심을 거두지만. 앙졸라스에게는 실패한다.

앙졸라스는 고발하지 않을 테니 혁명을 도와달라고 제안한다. 그랑테르는 자신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며 거절하지만, 떠나지 않는다.





## **CLIMAX**

앙졸라스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쿠르페락의 얼음 마법과 콩브페르의 치유 마법(그동안 몰랐었다.)의 힘을 합쳐 그랑테르를 구해낸다.

> 앙졸라스는 군중 앞에서 당당히 마법사들이 겪는 부조리함을 비롯한 사회를 꼬집는 연설을 하며 사람들을 한마음으로 끌어모은다.



## **RESOLUTION**

모두가 들고 일어선 덕분에 혁명은 성공하고 마법사들은 자유를, 서민들은 평등한 기회를 얻게 된다. 그랑테르와 앙졸라스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우정은 더욱 돈독해진다.

